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 후 식



“경상도의 김두관, 충청도의 안희정, 강원도의 이광재 같은 인물이 광주·전남에는 왜 없을까” “한나라당의 나경원·원희룡·남경필 같은 차세대 주자들이 왜 민주당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 정치에 관심 있는 지역민이라면 한 번쯤 가져봤을직한 의문들이다.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상관 없이 향후 한국 정치를 이끌고 나갈 젊은 동량들이 분명하다.

광주일보의 지난주 ‘위기의 광주·전남 정치권’이라는 의제를 던졌다. 광주·전남은 민주화를 선도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민주당의 뿌리였다.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감각

다.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뉘면서 썩은 지역정치권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비중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J프로젝트나 F1,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등 지역현안 대응에도 응징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역의 미래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중진 의원 상당수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후진까지도 경쟁자로서 여기는 경향이 짙어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그룹 등이 사

의 그늘에 안주하면서 새 시대에 맞는 도전이나 의제설정을 하지 못한 탓이다.

반면 김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선에서 이미 남북한 평화통일론, 향토예비군 폐지, 대중경제노선 등을 약속했다. 1970년 11월 1일 광주공설운동장 강연회에서는 “신민당이 집권하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시대를 앞서가는 도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역량있는 차세대 주자 키워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역량있는 정치 엘리트를 키워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비전과 수권능력을 갖춰야 지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치의 폐쇄성과 배타성,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정치인을 키우기보다 흡입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도층과 인물의 행태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속에서도 급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희망적이다. 결과해지(結果解)라고,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정치인들 몫이다. 변화의 물부림 없이 구태만 반복한다면 지역민심은 머지않아 대안세력을 찾아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부장>who@kwangju.co.kr

지역정치권 위기, 탈출구는 있다

으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임을 자부해왔지만 최근에는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이는 점에서 현재 민주당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지역 정치권이 ‘위기상황’이라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입장은 사뭇 달랐다.

지역 정치권이 처한 현실은 ‘리더십의 위기’ ‘신뢰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로 집약할 수 있었다.

‘리더십의 위기’에는 분열이 한몫을 했

실상 머리와 허리를 장악하고 있다.

‘신뢰의 위기’는 지역민들의 지역정치권에 대한 믿음과 기대 저하가 주 요인이다. 김만중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은 “현재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의식을 독점하고는 있지만 그에 반해 민주당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아 의석과 민심이 괴리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다.

‘미래비전의 위기’는 지역정치권이 경제양극화와 복지 등 시대적 이슈를 제대로 선도하지 못하는데 비롯되고 있다.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은편칼럼



최영태

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초와 하순 두 차례에 걸쳐 사립대학 43곳과 국립대학 5곳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했다. 부실사립대학 43곳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이 모두 망라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지방 소재 대학들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중에서도 3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부실국립대학 5곳은 모두 지방 소재 대학들이었다. 부실대학 발표를 전후로 하여 사회여론은 대학의 방만한 경영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돈 잔치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비판 중에는 물론 귀담아들을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비판에서도 지방대학들, 특히 지방 국립대학

지방대 육성안, 내년 총선·대선 주요 공약으로

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많은 등록금을 받은 곳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이었고 그 덕분에 높은 연봉을 받은 곳도 그들 대학의 교수들인데 말이다.

부실대학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인데 지방대학은 이 두 가지 요소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의 낮은 취업률은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요인은 대기업 등이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낮은 취업률은 다시 재학생 충원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서울 소재 대학생 27만 명 중 지방출신이 14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도 1년에 평균 5000명 정도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방 연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몇 년 후에는 대입 학령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불리한 외부적 조건하에서 지방

대학들이 오로지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책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국 선진 국가들을 가보면 명문대학들이 인구 5~10만의 지방 소도시에도 소재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출신 대학이 단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수험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현상은 분명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 원칙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역행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수도권 출신 정치인들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 같지 않다. 결국 지방의 주인공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에 토대를 둔 정치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이고 이

것은 또한 한국의 위기가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과열과 과도한 과외비 역시 지방대의 추락 및 수도권 대학 선호상과 관계가 있다. 국가의 발전이나 지역의 생존을 위해 지방 출신 정치인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또 호남, 영남, 충청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대 육성안을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울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지방대 육성 공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있으면 좋겠다. 첫째, 정부의 지방대 지원을 대폭 확대시킨다. 둘째, 지역발전제 등을 전 공기업으로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일반 기업체로 까지 확대할 수 방안을 찾는다. 셋째, 지역마다 명문대학들을 1~2개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을 완화시키고 그 결실이 지방의 모든 대학으로 선순환 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지역정치인들의 대두와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전남대 교수·역사학>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안중현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이 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는 계절이 왔다. 하지만, 지난 1909년 10월 26일 일제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의거가 있었으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안중근 의사의 중국 하얼빈(Harbin·哈爾濱) 의거이다.

1905년 11월 17일 만만년 세월을 지켜온 한민족은 을사조약이 체결(勅裁)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사실상 나라를 빼앗겼다. 고종 황제를 협박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어 우리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이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伊

‘안중근 의거’ 26일엔 현충시설 찾아 봅시다

藤博文)다.

그는 일본의 전 총리로 4번이나 총리직을 역임한 초대 조선통감이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많은 분들이 순국하고 그 치욕을 갚고자 기회를 엿봤다.

그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있었는데, 안중근을 포함한 만주의 독립 운동가 우덕순·조도선·유동하·유승렬·김성화·탁공규는 7인 동맹을 맺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 마음먹고 거사를 계획하기에 이른다.

기회를 엿보던 독립운동가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자 거사를 준비한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코콥체프(Kokovsev)와 회담을 하기 위해 하얼빈 역에 도착해 차내에서 약 20분 정도 코콥체프와 얘기를 나눈 후 그

의 권유에 따라 명에 사령관으로서 러시아 수비병을 사살하기 위해 열차에서 내린다.

그가 수행원의 안내를 받으며 러시아 군대 앞을 막 지나가는 순간, 안중근은 한민족의 염원을 담은 권총 방아쇠를 당겼고 세 발의 총알을 쏘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시켰다.

안중근 의사는 흑시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것 같아 다시 세 발을 주위에 있던 일본 관리들에게 쏜 후 러시아 말로 “코리아 우라”(대한 독립 만세), “코리아 우라”라고 외친 뒤 러시아 군대에 체포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저격당한 지 30분 뒤인 오전 10시경 사망하고 안중근은 만주 뤼순 감옥에 갇혀 재판받는 데 이때 함께 거사를 했던 우덕순·조도선·유동하와 함께 재판을 받아 안중근은 사형, 우덕순은 3년 형, 조도선과 유동하는 1년6월 형을 선고받는다.

이때 뒤에서 안중근의 거사를 도와주었던

재러 교포이자 러시아의 대부호였던 최재형이 러시아인 변호사를 준비시켰지만 일본의 방해로 변호사는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된다.

안중근 의사는 “올은 일을 하고 받은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라고 했던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의연하게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생을 다한다.

기록을 중시하는 일본의 특성상 안중근 의사의 매장 장소를 모를 리 없었지만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아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요즘 단풍의 절정시기에 산들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단풍놀이도 좋지만 10월 26일만 큼은 주위의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와 항일독립투쟁에 헌신하신 수많은 애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광주지방보훈청장>

도시 주부들 농수산물 구매 때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하길

전남·북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곡창지대이자 청정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천혜의 고장이다. 그만큼 농업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정부가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간 무려 2조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갈망했던 농민들에게는 제도의 중요성과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다.

원산지표시제가 잘 정착되면 농민들은

제값에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해서 안전하고 농약이 적은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사서 소비할 수 있다. 이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도시의 주부들은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단 1분만 투자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밥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즉 농수산물 구매할 때,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주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왜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쇠고기 이력

정보는 휴대폰(6626→인터넷→이력 번호 입력)을 이용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럽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1588-8112번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도시 주부들의 이런 작은 관심이 결국 우

리 농촌을 살리고, 음식을 먹는 가족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것이다. 도시 주부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식복위생 안전을 스스로 지키면서 가계부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바로 그것인 셈이다.

▲김삼욱·목포시 대방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2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주시 잇단 의혹, 행정 투명성 높여라

광주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잇달아 제기돼 논란이다. 수 십억 원이 투입된 ‘꽃잔디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광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0억여 원을 들여 시내 일원에서 벌인 꽃잔디 사업에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꽃잔디의 일부가 말라 죽는 등 부실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시는 당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청 앞 ‘평화광원’사업도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 예산 낭비 의혹을 사는 등 환경농지 관련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 감사관실은 CCTV 회선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입찰공고를 낸 뒤

뚜렷한 이유없이 취소하고 8월 수정공고를 낸 점, 특정업체의 실적에 대한 효력 여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 화면에는 복수제가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해놓고 비(非)제가 방식으로 입찰한 점 등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을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생명은 투명성이다. 행정의 의혹을 받고 불신을 산다면 추진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과 관련된 의혹은 비리로 이어지기 쉽고,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시는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 과정에 잘못이 드러나거나 비리가 개입됐다면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정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운태 시장이 의혹규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충격적인 인화학교 ‘암매장’ 실제 밝혀야

인화학교의 전신인 옛 전남농악학교에서 40여년 전 학생 2명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영화 ‘도가니’에서 비롯된 인화학교 과정이 극단적인 살해·암매장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악로서 당시 이 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던 김영일(71)씨는 17일 “지난 1964년 10월경과 고아였던 남자아이(7세 추정)에게 교감이 밤을 굶기고 때려 사망케 했으며, 이듬해 4월경에 학대당한 여자아이(6세 추정)가 보육하던 할머니의 실수로 숨지자 광주 동구 학동에서 7km 정도 떨어진 무등산 기슭에 암매장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은 당시 광주일보의 전신인 구 전남매일신문(1969년4월29일자 4면)에 아이들을 굶기고 구타했던 교감의 사진과 김 교사가 투쟁했던 내용, 그리고 경영자 측의 폭행과 구호물품 착복 등 5개 항의 비행 사실이 보도돼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이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청각장애 여학생들의 옷을 벗기고 누드화를 그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는 현재 모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실제 규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간이 많이 흐른데다 이미 아파드들이 많이 들어서 묻은 곳을 찾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경찰은 교내 성폭력과 인권 유린 등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암매장에 관여했던 당사자와 경영자 측, 그리고 당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실사,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정황상의 사실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에 떠밀린 눈치보기 식 수사라면 진실이 묻히고,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다.

無等鼓

1960년대 후반, 한국에 무협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금검지(金劍誌)다. 대만의 무협작가인 와룡생 선생이 1964년 발표한 ‘검검조련’과 그 후편적인 ‘악소제’ 두권을 국내에서 한 편으로 엮어 12권으로 번역·출간된 작품이다. 지금의 7080세대 중에서는 고교·대학시절 집과 학교에서 밤을 꼬박 새워 금검지를 독파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시 중국 대하역사 소설로 소개됐던 금검지는 무공을 모르는 주인공 소영과 여주인공 악소제가 강호의 피비린내나는 금궁지약(禁宮之藥·금궁의 열쇠) 쟁탈전에 휘말려 일어나는 사건들을

금검지(金劍誌)



스릴있고 생동감 있게 그려낸 명작이다. ‘정통무협’을 표방한 금검지는 장풍(掌風)을 비롯해 전음입밀(傳音入密), 운기(運氣)를 활용하는 생소한 무공과 치료법을 국내에 처음 소개함으로써 무협계의 붐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특히, 소설의 내용 중에는 한 도사(道

무렵이나 한의학에서 주로 거론되어 왔던 경락(經絡)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염색법과 극미세 형광입자를 사용해 경락의 실제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머리카락 굵기의 투명한 경락이 간

과 심장, 척수, 뇌, 림프관, 혈관 등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통 무협지를 아끼는 애독자로서, 한 때 탐닉했던 무협지의 내용이 일부는 사실이었다는 점, 그리고 인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쁘고 또 설레는 심정이다.

/홍행기정경부처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이사 申港樂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편집국내선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론매부	2200-621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경명지원회		2200-515	문화회보국
(대표 FA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